



명랑 숙녀 신세경 새로운 캐릭터로 스크린 복귀 완료!

배우 신세경이 2년 만에 모두의 기대를 안고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청순 글래머(청순한 얼굴과 글래머 같은 몸매를 가졌다는 뜻)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신세경, 영화 '타짜-신의 손'에서도 청순함과 섹시함을 오가며 변화무쌍한 카리스마를 선보인다.

글 김겨울 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뉴시스

interview



몽환적인 눈빛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신비감을 전했던 신세경이 영화 '타짜-신의 손'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신세경이 연기한 '허미나'는 대길(최승현)의 첫사랑으로 할 말은 다 하고 마는 당찬 매력을 지닌 캐릭터다. 신세경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역"이라며 허미나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늘어놓았다. "출연한 배우의 당연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허미나 같은 여자 캐릭터를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바라는 여성상이기도 했다. 허미나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엄청 비극적이지 않나.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과거를 가진 여자다. 구질구질하고 힘든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멋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매력 중 하나라고 느꼈다."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컸던 '타짜-신의 손'

신세경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유명 하우스 신을 꼽았다. 불법 도박장인 유명 하우스는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끝을 상징하는 공간. 대길(최승현)은 이곳에서 허미나를 구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펼친다. 신세경은 이 장면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경험하고 피폐해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희한하게 끝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유명 하우스를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 아끼는 신이고, 어쨌거나 허미나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영화 이야기를 할 때면 신세경은 어느덧 허미나와 한 사람이 된다. 감정을 공유하고 되새기고 있다. "도전이 됐을 거 같다. 모든 캐릭터가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 캐릭터에 너무 빠져들어서 애착이 남다른 거 같다. 사실 아직까지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곤 영화 속 노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 "피해갈 수 없는 신이라 생각했다. 사실 노출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노출 신은 영화 속에서 중요했다. 여배우가 노출 신을 두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훨씬 컸고 노출이 소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배우 신세경

'타짜-신의 손'은 전편에 비해 젊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룹 빅뱅의 리더 탑이 전작 고니(조승우)의 조카이자, 후속편의 주인공 대길 역을 맡았다. 신세경은 "호흡은 잘 맞았다. 서로 서포트해 주고, 주고받는 편이었다. 아무래도 미나와 대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서로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영화 들어가기 전에 비해 기대 이상이였다. 배울 점이 많았다.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성실한 편이더라."라고 평했다.

신세경은 사실 연예계에서도 예의 바르기로 소문났다. 상대 배우를 잘 배려하는 것은 물론, 중견 배우들에게도 깎듯한 성격이다. 신세경은 "사실 낯도 좀 가리는 편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상대 배우나 같이 작업하는 모든 배우, 스태프, 매니저 오빠들, 사무실 대표님까지도 다 내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다."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문득 '나 지금 몇 살이랑 대화한 지?'란 생각이 들만큼 그는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배우였다. 특히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빨려 들게 하는 매혹적인 눈빛, 거기에 독립적인 사고까지 갖춘 신세경의 모습은 프렌치 시크너의 대명사 제인 버킨을 연상케 했다. 🍷

TIP

1백만 불짜리 미소의 비결

평소 신세경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편으로 소문이 나 있다. 밤샘 촬영 중 간식이나 커피, 콜라 등을 먹어도 양치질은 절대 잊지 않아 현장 스태프들로부터 '역시 프로'라는 평가를 받았다.

날씬한 몸매의 배경에는 운동이

"아침을 챙겨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신세경은 "먹는 걸 좋아해서 항상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영화 '타짜-신의 손'의 촬영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